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해진다

접대성 경비 증빙 서류 의무화...50만원 초과 뎀 상대방도 기재 조례 입법예고...편법 사용 막고 내역 공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목포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투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는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목포시의회는 16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집행의 목적성·책임성·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역대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생필품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카드깡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업무추진비의 80%가 식대로 지급돼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은 앞으로 편법 사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지역정가의 견해다.

조례에 따르면 접대성 경비집행과 불품

구입은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불가피한 경우만 현금을 지출하도록 했다.

현금지출 시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땐 지급목적과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또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대인원 1인 1회당 4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접대성경비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집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건당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조례가 공포되면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되고 그동안 일괄 공개됐던 것과 달리 사용일시·집행 목적·대상 인원수·금액·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기재된 각 지출 건별 사용내역이 공개된다.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가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진행되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단추로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선언했다. <목포시의회 제공>

또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제재방안도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휴환 목포시의회 의장은 "우리에게는 상상 이상의 법적·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미"라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를 시작으로 출장비 등 지

방의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추진비는 공청회와 세미나, 각종 회의와 행사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구성돼 있다. 의장의 경우 매월 265만원, 부의장은 186만원, 각 상임위원장은 86만원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새 등지'

자유공간 설치 사업 공모 선정...12월 개소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랫츠런 재단(마사회 사회공헌재단) 후원으로 추진한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사업 공모'에 선정돼 새 등지를 마련하게 됐다.

이로써 전국 206개 청소년지원센터 가운데 목포시 등 9개소가 선정돼 개소당 4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오는 10월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목포 청소년지원센터는 사회진입을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복귀를 돕는 기관으

로 검정고시 대비반 '스마트 교실', 과목별 학습 멘토링, 인터넷 강의 지원 등을 펼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5월 실시된 검정고시에 58명이 응시해 54명이 합격하는 쾌거와 함께 지난해에도 98% 합격률을 달성했다.

한편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1억2800만원(국비 70%, 시비 30%)을 지원받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한 자립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포=임영준 기자 lyc@kwangju.co.kr



지난 9일 목포 역사문화 체험활동에 참가한 학생과 교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교육지원청 제공>

중학생들 "목포의 역사를 찾아서"

목포교육청, 100여명 대상 체험활동 실시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점)은 지난 9일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목포 역사 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근대 항구도시 목포의 역사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목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키고,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보고 학생 스스로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청소년 역사교육 활동이다.

체험활동은 목포대학교 최성환 교수의 '목포 역사 이야기'강의와 함께 목포 원도심의 근대역사문화거리와 근대상업거리의 근대문화유산 스탬프 랠리와

목포모던타임즈 체험활동으로 진행됐다.

또 전남수목비엔날레와 '목포야행'의 다채롭고 색다른 문화체험행사에도 참여해 과거의 역사가 현대에 재해석되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경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목포교육지원청은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사문화 체험활동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역사에 대한 관심 증대와 올바른 역사인식과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목포 청소년 역사 탐구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김준서 기자 kjs0533@

목포시 대양산단 분양 총력 실무형 기업유치단 발족

목포시가 대양산단 분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목포시는 18일 기업인과 시의원, 경제·노동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업유치단이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유치단은 기업유치팀, 투자자문팀, 금융지원팀 등 3개 팀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유치단은 그 동안 범시민유치위원회 등에 참여했던 기업체 대표 등 명망가 중심에서 벗어나 실무형 위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이들은 앞으로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과 산업위거지역 입주지원혜택 홍보, 기업유치 아이디어 발굴 등을 추진한다.

목포시는 기업유치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업유치단 활동을 지원할 관련 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지역에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유치를 성사시킨다는 게 목포시의 전략이다.

한편 시는 현재 대양산단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70여 개 업체와 접촉 중이며, 이중 8개 업체는 유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임영준 기자 lyc@

안전진단 C등급 청호고가교 보수·보강공사 추진



목포시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청호고가교에 대해 55억원을 들여 3년에 걸쳐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가 전남도청 진입로에 위치한 청호고가교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목포시는 호남선 철도 하월 횡단교량인 청호고가교는 시특법 2중 시설로 건설된 지 19년이 경과된 노후 교량인데다가 지난 5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철도와 도로 안전을 위해 보수·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 문제점들을 보완하는데 총 5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목포시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목포시 건설과는 국·도비 지원 대상으로 특별·소방안전 교부세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연차사업으로 시비를 확보해 준비를 추진기로 했다.

현재 시는 올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2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전남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우선 시는 올해 12억원을 투입해 포장(교면방수 포함)과 배수관 교체, 받침장치 교체, 강재도장(블트부) 등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단면복구(t

=30mm), 표면보수, 재도장부, 받침장치 교체, 신축이음 재설치 등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3년차에는 26억원을 투입해 재도장하고 주입보수, 압성토 보수, 미끄럼 탄성포장, 받침장치 교체, 교량 점검로 설치 등을 실시해 2020년까지 보수·보강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왕복 6차선인 청호고가교는 길이 280m에 폭 35m로 지난 1999년 준공됐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시행하다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2018년 마음챙김 시민대학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일상의 행복과 삶의 가치 재발견을 위한 마음챙김 시민대학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적인 태도로 자각하는 것, 대상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되 주관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일상 속 알아차림
- 모집개요

자격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모집인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마을과 명상 이야기, 감정탐색, 마음 들여다보기, 그저 이해하는 깊은 명상, 페르소나, 마음도형 함께 그리기, 춤 테라피, 바디스캔, 하타요가 등	45시간	20명
- ※ 강사 : 광주여자대학교 전임교원
- 모집기간 2018. 09. 03(월) ~ 2018. 09. 28(금)
- 교육기간 2018. 10. 02(화) ~ 2018. 11. 22(목)
- 교육시간 매주 화, 목 18:00 ~ 21:00
- 교육장소 광주여자대학교 강의실 및 실습실(추후 안내)
- 교육특전 교육비 지원(재료비 포함),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등
-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접수
방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여대관 1층 315호 평생교육원
전화 : (062)950-3583~5

"마음을 관찰하다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미묘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때 직관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더 명료하게 사물을 보게 되며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스티브립스(1955-2011)

주최 |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Gwangju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 주관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